

# 중국 최초의 통사 《사기》 완역본 출간

원문에 충실, 풍부한 주석 달아 이해 높여

《사기(史記)》는 너무 많이 알려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문 대표적인 책이다. 중국의 시조인 황제(黃帝)부터 한나라 무제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중국 최초의 통사로, 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역사가인 사마천(司馬遷 : 기원전 145? ~ 기원전 85년?)이 궁형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받고 나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책을 저술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최근 《사기》(전7권, 까치)가 완역, 출간돼 화제다. 번역을 맡은 사람은 정범진(61, 중문학) 성균관대 총장을 비롯, 그의 후학과 제자 등 국내 중문학자 60여명. 93

년 8월 〈본기〉를 출간한 데 이어 〈세가〉(2권), 〈열전〉(3권)을 출간하고 최근 〈표〉와 〈서〉를 내놓아 《사기》 완역이 마무리된 것이다.

### 우리말 투로 세심하게 다듬어

그동안 국내에 《사기》의 번역본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본기〉나 〈열전〉 가운데 몇 권을 추려서 번역한 것이 더러 있고 94년에는 작가 김병충씨가 완역 《사기》(전10권, 집문당)를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책 대부분이 역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 저자 얼굴

## “중국을 아는 백과사전 같은 자료”

### 《사기》 완역한 정범진 총장



정범진총장

“《사기》는 비단 역사뿐만 아니라 문학·철학·지리·천문·경제·신앙 등 중국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일종의 백과사전과 같은 자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료가 왜 아직까지 완역이 되지 않았나 의아해하면서도 감히 혼자서는 번역할 엄두도 못냈었는데, 후학들의 발의로 번역작업에 참여해 완역의 결실을 이루고 나니 나로서는 뜻밖의 소득을 얻은 셈이 돼서 여간 뿌듯한 게 아닙니다.”

얼마전 후학들과 더불어 사마천의 《사기》(전7권, 까치)를 완역, 출간한 정범진(61, 중문학) 성균관대 총장의 소감이다.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 도중 누군가의 발의로 《사기》의 번역작업에 착수한 것이 4년전 쯤. 정총장과 그의 후학·제자 등 60여명이 130

하고 공동검토를 거쳐 책을 펴냈다.

정총장은 특히 한자어에 많은 동음이가(同音異字)들을 통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힌다. 가령, 식(食)이 경우에 따라 ‘식’ ‘사’ ‘이’로, 삼(三)이 ‘삼’으로 발음되는데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 여러차례 검토를 거쳤다고 한다. 일찌감치 출간됐던 〈본기〉의 경우, 이런 오류가 더러 눈에 띄어 지난해 개정판을 찍으면서 모두 수정하기도 했다.

“당대(唐代)의 전기소설은 《사기》 〈열전〉의 형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당대소설이 전공인 정총장이 《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이밖에도 정총장은 독자들이 다소 어렵더라도 〈서〉를 찬찬히 읽어주기를 기대한다. 〈서〉야말로 사마천의 천재적인 재능과 학자로서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으로 당시의 학문과 사상, 기술과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문학, 특히 당대소설에 집중해왔던 자신의 학문적 관심을 마무리짓는 것이 정총장의 앞으로의 계획이다. 이미 《당대소설 연구》《중국문학사》 등을 펴내기도 했는데, 중국문학사 전반을 살피는 개론서나 ‘당대소설사’ 집필을 구상중이다.

—박남정 기자

《사기》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완역됐다. 체재나 내용, 방대한 분량과 사안의 전문성 등 불후의 걸작이 아닐 수 없다.



특정 부분만을 선별한 것이거나, 완역이더라도 의역과 평역이어서 《사기》의 진수를 온전히 맛보기는 힘들었던 실정. 개중에는 일본어판의 중역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독자들이 《사기》의 전 권을 온전하게 만나보기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말 투로 문장을 다듬고 상세한 주를 달아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

사마천은 대대로 사관이 많이 나온 집안에서 태어나 10살부터 옛 전적을 배웠고 천문학과 역수(曆數)에 상당한 지식을 쌓았다고 한다. 그의 부친 사마담 역시 뛰어난 사관으로, 공자가 쓴 《춘추》의 뒤를 잇는 역사서 편찬사업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겼다. 사마천이 이 유언을 받들어 《사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마천은 청장년 시절에는 전국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회생활의 면면을 몸으로 익혔고, 역사적인 유적지와 옛 성현들의 발자취를 답사하고 각종 자료들을 수집했다. 이런 행적이 《사기》의 역동성을 더하는 데 일조했음은 되물어볼 필요도 없다.

《사기》는 크게 다섯부분으로 나뉜다. 세계(世系)와 연대순서에 따라 역대 제왕들의 통치·인사 등을 기록한 〈본기(本紀)〉가 그 첫부분. 〈표(表)〉는 도표형식으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도표 자체만 해도 분량이 엄청나 이번 책에서는 연표 앞에 나오는 서문만 번역해 수록했다. 〈세가(世家)〉는 봉국(封國)을 세습한 제후와 왕들의 흥망성쇠의 사적을 국가에 따라 기록해놓은 것이고, 〈열전(列傳)〉은 각계각층의 유명 인물들의 사적을 기술한 것이다. 《사기》 중

에서는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흥미롭게 읽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백이·노자·한비자·굴원·오자서·이사 등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쟁쟁한 인물들의 이야기 70편이 생동감 넘치는 문체로 전개되는 〈열전〉은 후대 ‘전기소설’의 문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이다. 〈서(書)〉는 사마천의 학식과 분석력, 천재적인 재능이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된 부분이다. 따라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기도 해 국내에서는 제대로 번역된 적이 없었다. 예의·예속·음악·군사·기상·역법(曆法)·천문·신앙·지리·수리(水利)·재정·경제 등 당시의 제도와 풍속, 문화 전반에 대한 일종의 논평으로, 요새말로 논문집인 셈이다. 사마천이라는 한 개인이 지녔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깊이있는 관심과 해박한 지식, 탁월한 분석력과 해안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 방대한 분량과 해박한 지식

기원전 110년, 36세의 사마천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사기》 저술을 결심한 때다. 기원전 91년 《사기》가 완성됐다. 체재나 내용, 방대한 분량과 사안의 전문성 등 어느모로 보나 불후의 걸작이 아닐 수 없는 《사기》는 출간 후 2천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손때를 타는 교양서로, 그리고 아시아 제 국가의 역사와 문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책으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다. 사형보다 더한 궁형을 감내하면서도 《사기》를 완성시킨 사마천은 권좌의 ‘갈’보다 ‘펜’의 힘이 더 오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박남정 기자